

'5월 순천' 거리예술로 가득 채운다

시, 매주 토요일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운영 힐링콘서트·음악회·가락 한마당 등 다채로운 공연

순천문화재단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 공연 '2026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5월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5월 공연은 매주 토요일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의거리, 오천그린광장, 신대천 등 순천 전역 주요 거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2026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5월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5월 공연은 매주 토요일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의거리, 오천그린광장, 신대천 등 순천 전역 주요 거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2026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5월 공연을 선보인다.

신대천 등 순천 전역 주요 거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2026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5월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5월 공연은 매주 토요일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의거리, 오천그린광장, 신대천 등 순천 전역 주요 거점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2026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5월 공연을 선보인다.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상설공연 '365 페스타'가 운영된다. 9일 문화의거리에서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지는 '소리와 울림' 공연이 펼쳐지고, 16일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세대공감음악회'가 열린다. 기획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9일 조례호수공원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열리고, 23일 낙안읍성에서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락 한마당' 공연이 펼쳐져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신대천 무지개다리 일원에서는 '윤슬 세레나데' 공연이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달빛과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야간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감성적인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아고라 음악회'도 운영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공연으로 의미를 더한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5월 공연은 가족과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만큼,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공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석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문화재단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 공연 '2026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5월 공연을 선보인다. 사진은 최근 열린 신대천 공연 모습. 사진제공=순천시청

장애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광양,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광양시가 장애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시행하는 '2026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을 6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광학문자판독기, 특수마우스,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128개 품목을 지원한다. 지원은 제품 가격의 80%를 기본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광양시 디지털정보과)과 누리집(at4u.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활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급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7월 16일 전남도 누리집 공지 또는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예산 증액으로 보급 대수가 전년 226대에서 327대로 약 45%가 늘었으며, 지원 품목은 일부 조정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정보 격차 해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고흥,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본궤도 드론배송·공공서비스 가동...스마트 행정 '착착'

고흥군은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K-드론배송 상용화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된 가운데 드론 배송과 공공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득량도, 상·하화도 등 섬 지역과 거금해안남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4개소), 배달점(15개소), 항로 등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군은 드론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치안 순찰, 산불·화재 감시, 양식장 녹조 예방 등 공공 분야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드론 기술을 행정 전반에 스마트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드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드론 배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첨단 물류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드론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드론 실증과 상용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고흥군은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K-드론배송 상용화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된 가운데 드론 배송과 공공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섬 지역 드론 배송 시연 모습. 사진제공=고흥군청

구례, 비료값 급등 대응 '적정시비 캠페인'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나서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비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전남 구례군이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과학적인 비료 사용 체계를 통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토양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과 활용 특성에 맞는 처방서를 활용하면 필요한

비료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과잉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은 이를 통해 농가의 비료 구매 비용 절감은 물론 토양 오염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장 밀착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구례군은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농가를 직접 찾아 비료사용처방서 활용 방법과 작목별 양분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자원 활용법도 함께 교육하며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구례=이민구 기자 city@qjdream.com

여수거북선축제에 방문객 31만명 흥행

지난해 22만명...41% 증가 도심 전역 축제 열기 확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재조명한 여수거북선축제에 대규모 관람객이 찾으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7일 여수에 따르면 최근 이순신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우리는 오늘, 이순신이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제60회 여수거북선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60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총 31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2만명 대비 약 41%가 증가한 수치로, 축제 기간 내내 현장의 활기가 이어졌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통제영검놀이'에는 개최 연도에 맞춘 1967명이 참여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전라좌수영 수군의 기개를 재현한 퍼포먼스는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개막공연의 나비 조



최근 이순신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우리는 오늘, 이순신이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제60회 여수거북선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형물 연출과 화려한 해상불꽃쇼는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관에서 진행한 '전라좌수영 특제'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전! 이순신골든벨'은 여수의 역사와 수군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박진감 넘치는 '삼도수군 태

권무 경연대회'와 축제 60주년 기념관, 거북선 그리기 대회 수상자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75개의 프리마켓과 36개의 체험 부스가 축제장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8개 읍·면·동 음식 부스는 축제의 풍성함을 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과

뉴질랜드·폴란드 등과 604만달러 계약...전년비 175% ↑

장흥군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수산물 수출 5000만달러 달성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상담회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개국 11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해 지역 업체들과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장흥 농수산품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상담회 결과 뉴질랜드,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4개국과 총 400만달러(58억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7개국과는 총 204만달러(30억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국 청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해외특산물 판매장을 중심으로 김을 비롯해 청국장, 막걸리,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 MOU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불우이웃 돕기 기탁식에서는 총 11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이 전달됐다. 농협회사법인 수미지인은 쌀과자, 바다

채소는 미역세트, 케이엔지글로보른은 성금, 미풍은 쌀, 무산김과 세화제이엔제이 식품은 김 세트를 각각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했다. 군은 상담회 기간 동안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와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향후 마케팅 영상, 사진,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지역 농수산품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마케팅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곡성, 고흥사랑기부 이벤트 답례품·모바일 상품권 증정

곡성군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고흥사랑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곡성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31일까지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특별 이벤트로 알차게 구성했다.

'인기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곡성군에 고흥사랑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는 기부자 선호도가 높은 13개 인기 품목에 대해 추가 증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품목에는 곡성축협 한돈 삼겹살·목살 구이 세트, 석곡농협 유기농 백세미 누룽지 세트, 옥과농협 세척사과, 옥과 맛있는 김치 등 지역 특산물이 포함됐다. '모바일 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운영된다.

5월 한 달 동안 곡성군 고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 중 총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GS25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고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 웰로와 시중 은행 앱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최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곡성 고흥사랑기부에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